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디플정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 성료

-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사 초거대 AI 기술 적용한 PoC 성공적 마무리
- 국가 디지털플랫폼 발전 공로에 대한 표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바이브컴퍼니(대표 김성언, 이하 바이브)가 정부 주도의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바이브는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에서 네이버, KT, 마음AI와 함께 자사 초거대 AI 기술을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지원해주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바이브는 지난해 6월부터 50곳이 넘는 수요기업 및 기관과 매칭되어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 특히 초거대 AI 사업 공급기업들에 할당된 총 63개의 PoC(기술검증)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37건(59%)의 PoC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브는 자체 생성형 AI 언어모델인 바이브GeM(VAIVGeM)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LLM(Large Language Model, 초거대 언어모델)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한전KPS, 한국관광공사, 양산시청, 충남도청 등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에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다.

바이브는 기업 및 기관과의 1:1 컨설팅을 통해 ▲사용자의 내·외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제공하는 '바이브 서치GPT(VAIV SearchGPT)' ▲AI가 데이터의 수집, 분석부터 리포트까지 작성해주는 '바이브 리포트 코파일럿(VAIV ReportCopilot)' ▲AI 대화 솔루션 '바이브 챗봇(VAIV Chatbot)'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선별해 요약해주는 '바이브 뉴스다이제스트(VAIV NewsDigest)' 등 크게 총 4개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중에서도 바이브의 대표 솔루션이기도 한 바이브 서치와 바이브 챗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 각 기관의 내부 데이터와 바이브의 기술을 결합한 데모 사이트를 구축해 내부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oC 만족도 조사에서 95%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바이브는 지난 12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자사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이날 국가 디지털플랫폼 발전에 대한 공로에 대한 표창으로 바이브 장환석 수석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이브 김성언 대표는 "사업을 통해 각 기관 및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 만족도가 높아 다수의 기관들과 2024년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축적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기관들이 초거대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및 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브는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AI 파트너, 바이브'를 새로운 기업 슬로건으로 삼고 자사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이나 기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자료>

사진 설명 =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표창을 수여받고 있는 바이브 장환석 수석 연구원(오른쪽)

